

교육목장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이 세 언
본회 홍보실 과장

1. 들어가면서

1) 교육목장육성사업의 추진배경

과거 80,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낙농인들은 우유생산만으로도 그런대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으나, 지금은 우유생산만으로는 생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료값은 낙농인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 버렸고, 8년만에 다시 찾아 온 구제역으로 우리 낙농은 시름시름 앓고 있다. 또한 낙농선진국들과의 FTA는 낙농산업 전반에 먹구름을 뒤덮게 만들었다. 이에 낙농산업 전체에 휩싸인 불안감은 농가의 낙농업 이탈로 인한 산업이 위축으로 이어져 나갔다. 이러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위해 우리는 지구책으로 낙농자조금사업, 목장형유가공업, 체험목장사업 등을 시작하며 우수소비 확대를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며, 목장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협회는 이러한 낙농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농가 교육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낙농자조금사업으로 시작한 여성낙농인 목장경영전문화교육에서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 20여명을 선발하여 해외 선진지 낙농을 배울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해외연수단은 지난해 가을 7박 8일 일정을 유럽(프랑스, 독일)의 낙농을 접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를 가졌다.

그중 우리는 우리에게 생소한 교육목장을 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목장자원 그대로를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초등학교 등을 교육시키는 모습에 우리 연수단은 신선한 충격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우리 연수단은 많은 토론 끝에 우리나라 여건에 맞게 이를 받아들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협회에서 이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후 협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교육목장육성사업을 위한 행보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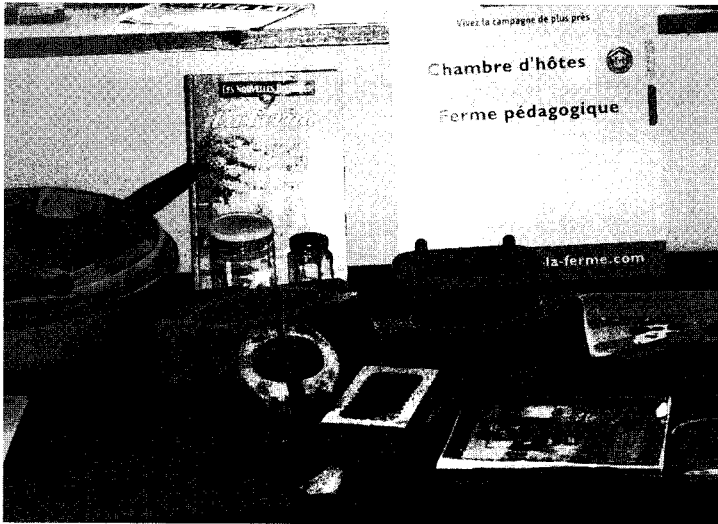
2. 낙농산업의 새로운 장르인 교육목장 육성사업 전개

1) 교육목장이란

교육목장이란 단어는 우리 낙농인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단어다. 어설피 아는 이들은 ‘교육목장과 체험목장과 차이점이 뭐야’, ‘체험목장과 뭐가 다른거야, 괜히 예산낭비 하는 거 아냐?’ 라는 식으로 말들을 하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교육목장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낙농산업에서는 생소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에게 교육목장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낙농산업의 새로운 장르라고 말하고 싶다. 낙농업에 있어 과거 생산만 했던 시절을 1차 산업으로 본다면, 목장형유가공사업을 2차 산업, 체험목장 등의 서비스 사업을 3차산업, 그리고 교육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교육목장 사업을 4차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목장이란 말 그대로 목장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다. 낙농의 교육적 자원을 일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





생들의 정기적 방문을 유도, 미래의 우유소비 주체인 학생들에게 낙농 가치를 교육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목장 사업은 학교교육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교육계의 신뢰를 쌓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목장 방문

을 이끌어내는 한편, 우수한 품질이 인증된 교육목장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2) 교육목장육성과 필요성

우리 낙농은 위기다. 안으로는 높은 사료가격과 구제역, 부루셀라와 같은 악성 질병으로, 밖으로는 낙농선진국들과의 FTA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버렸다. 이대로 있다간 값싼 외국의 유제품 등에 밀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소비자들이 우리의 우유를 등한시 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우유소비에 대한 내수기반을 공고히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미래의 우리우유 소비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우리 우유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소비자 및 교육계의 친밀감 형성과 올바른 소비 가치 전달을 통한 학교우유급식 및 우유소비 내수기반을 확보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인 '교육목장 육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3) 교육목장과 체험목장과의 구분

교육목장은 낙농목장의 인적, 물적자원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하여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주제중심

의 통합교과적으로 접근, 자기주도적인 학습 전개 및 능동적 사고를 개발하고 발견할 수 있는 낙농자연학습장이다. 또한 교육활동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계에 대한 협상과 홍보가 가능하며, 큰 투자가 필요없음으로 규모가 큰 목장뿐 아니라 중소농가도 교육목장이 가능하다.

체험목장의 경우 그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살펴보면 유가공공장 견학, 젓 짜기, 건초주기, 우유먹이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우유상식 OX 퀴즈 등 단순하고 일관된 프로그램으로 목장 간 차별성이 없고, 단순 반복적 체험으로 소비자들의 방문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의 연계성이 낮고 방문객들의 연령 및 시기와 무관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구체적인 교육활동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아 교육적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교육계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체험목장은 대규모 방문객을 위한 시설투자 및 인건비 부담이 크며, 안정적인 방문객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경영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체험목장은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생소하기만 한 살아있는 젖소를 보여주며, 목장과 우유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의 순기능을 해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체험목장도 어느덧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체험목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장르로의 편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아마도 모 기관이 체험목장 프로그램에 교육목장사업을 접붙이기 시도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교육목장사업 인증 잣대가 목장주의 열의와 자질보다 목장의 규모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 교육목장의 경쟁력

교육목장은 학교교육과 철저히 연계되어 진행되는 사업이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정기적인 방문유도가 가능하다. 교육목장은 학급단위 방문객





을 기본 단위로 운영하고 목장주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 우유의 우수성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어 우리우유에 대한 애착과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어 미래의 소비자 확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으며, 낙농업 종사에 대한 자부심 또한 함양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목장은 체험목장처럼 과도한 투자를 유발하지 않는다. 목장 그 자체가 교육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깨끗하게 정리 정돈된 목장이 바로 교육장이다. 따라서, 목장주의 자세와 목장의 기본적인 위생·청결상태만 유지된다면 중소 농가도 교육목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교육목장은 목장주가 교육을 통해 자신의 목장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목장 간 차별화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개발 노력을 통해 스스로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일에는 학생들을, 주말에는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교육함으로써 소비자 확보가 쉽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소득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라 생각된다.

5) 교육목장사업의 해외사례

유럽을 중심(특히 프랑스)으로 농업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이미 1800년대부터 대두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한 형태가 교육농장이다. 교육농장은 기존의 체험농장에 대한 교육계의 불신을 해소하고 교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된 형태이며, 유럽 각국에서는 교육목장을 공식적으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농장은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프랑스의 경우, 1,600개소(2006년 기준)의 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분야는 주

로 낙농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교육홍보관이 건립되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애니메이터(교사양성)를 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목장 운영 농가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목장사업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프랑스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6) 낙농교육홍보관의 건립 및 이용

FTA 시대에 따른 수입개방 확대에 의한 국내 낙농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우유소비시장을 공공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의 미래세대(학생)와 소비층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낙농자조금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광고, PPL, 온라인, 오프라인 등을 통해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우리우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호응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는 파악할 수 없다. 물론 도심속목장나들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서고는 있지만 소비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심도있는 무언가가 부족하다.

이에 협회에서는 낙농관련 농가, 소비자 교육활동을 심화하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홍보 방향의 일환으로 하는 거점시설로 낙농교육홍보관 건립을 추진코자 하고 있다. 낙농교육홍보관을 통해 소비자 및 교육계(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활동 계획과 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과 낙농산업의 교육적 가치를 재인식시켜 우리 우유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낙농경영모델로서 교육목장 경영에 필요한 인력양성센터(교육목장 애니메이터)로서의 역할과 관리를 수행코자 한다.



7) 교육목장육성사업 추진계획

성공적인 교육목장 육성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통해 교육계의 신뢰를 쌓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목장 방문을 유도해 내야 한다. 또한 품질이 인증된 교육목장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4가지를 주안점을 두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목장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R&D와 교육목장 육성 준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육목장추진위원회 구성 및 연구용역을 통한 교육목장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연구용역 후 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 10여개 농가를 선정,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로, 교육목장사업은 농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므로 교육목장 교사양성 교육을 실시다. 교육목장사업은 교육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교육목장의 개념을 실천할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목장 교사양성과정을 통해 목장주가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재 및 교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목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목장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와 교육목장사업의 지원부분을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다.



셋째로, 교육목장의 네트워크 형성이다. 품질인증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목장 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품질심사 및 인증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협회로부터 품질을 인증 받은 교육목장은 협회가 교육계와의 소통, 소비자 홍보, 홍보물제작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로, 홍보 및 마케팅,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목장 설명회 및 심포지엄, 연대포럼 개최를 통한 교육목장의 붐을 조성하고, 교육목장 포털사이트 구축과 홍보물 제작하여 소비자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현장 및 학부모, 관련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목장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성과분석 및 조사연구사업을 매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3. 끝맺으며

교육목장사업은 우리 낙농가들이 교사가 되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우유 및 목장에 대한 친밀감 형성 및 우유의 가치 인식 전달로 학교우유 급식 확대 등 FTA 시대의 우리우유 소비 확대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낙농가들에게는 농외소득 창출과 교사로서의 자부심 및 낙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 그리고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세상에는 성문법 이전에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다. 관습법에는 조리(도의)라는 것이 있다. 조리(도의)란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동생활의 원리나 도리다. 사회 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信義誠實(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성문법을 떠나 관습법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누가해도 그만 아니냐”며 공익을 빙자하여 눈앞의 이익을 쫓아간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업에는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필수다. 우리나라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항상 비교열위에 있어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업을 이끄는 정부나 기관, 단체들은 농업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목장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농가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